

신뢰 바탕으로 업계 단결과 화합의 장 조성 조합원들의 든든한 버팀목 되기 위해 노력



류 종 우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3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0기 정기총회에서 류종우 삼보판지(주) 대표이사를 제8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5, 6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류종우 이사장은 최근 급격한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는 골판지포장산업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 아래 전국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단독으로 추대되어 선출됐다.

류 이사장은 “저를 재추대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과 지난 2년여 동안 대가없이 이사장 소임을 다해주신 김판길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조합이 조합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골판지포장 산업정책의 산실이 되고, 신시장질서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종우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창원제지공업사 대표를 거쳐 현재 삼보판지(주)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그는 현재 골판지업계 현황에 대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골판지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해 국내외 경기 침체에 제조업 공동화까지 더해져서 골판지 포장시장은 수량기준 38.09억㎡, 금액기준 1조9천억원으로 마이너스 0.02% 성장을 기록하는 등 매우

“품질경쟁만이 어려운 현재 상황 해결”

어려운 경영환경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골판지 업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골판지 원지 수급 파동과 인상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류종우 이사장은 “일부 지종에 따라서는 52%가 인상되기도 했지만, 제품가에 연동 반영이 되지 않아 전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자재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즉각 제품가격에 연동 반영키 어려운 점은 제품자체가 부재료라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40%에 이르는 설비로 인한 과당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류 이사장은 업계간의 과잉설비와 과당경쟁의 근본 원인은 시장예측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가 턱없이 부족함에 비롯됐다고 자료부족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류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골판지생산실적과 부문별 수요패턴이 매달 10일 통산성에서 집계될 정도로 신속·정확한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투자계획이나 시장예측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조합이 월별 분기별 생산출하실적과 설비내역 등을 수집, 공표하는 기능을 강화해 골판지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류 이사장은 최종소비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제품가격 조정을 업계공동으로 대

응하여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제지, 지합, 골판지 업계의 대화부족에 따른 업계불신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의 단결과 화합만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류 이사장은 “골판지 포장 산업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골판지 포장업계는 가격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골판지포장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류 이사장은 친환경적 소재인 골판지 포장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포장인으로서의 위상이 세워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골판지포장산업진흥 및 VISION 설정, 골판지포장산업 디지털 환경 기반강화, 골판지포장산업 정보교류 및 인력양성, 골판지포장조합의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골판지 포장업계가 구조조정 와중에서도 중심을 잃지않고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류 이사장.

전국 조합원들이 그가 현재 혼란스러운 골판지 포장산업계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책임자라고 믿고있는 이유를 인터뷰 내내 동감할 수 있었다. ☐

이한일 기자